남자 좌식배구 대표팀 광주서 '구슬땀'

내년 국제대회 준비 전지훈련
광주·전남 팀과 3차례 교류전
전갑수 회장, 숙소 등 전폭지원

한국 남자 좌식배구 국가대표팀(이하 대표팀)이 광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내년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아시아챔피언십을 대비한 전지훈련이다.

강용석 감독, 조은상 코치, 주장 박연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지난달 20일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문화체육센터 지하 1층에서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대표팀은 체력·전문기술 향상 훈련과 함께 광주지역 남녀팀, 전남팀과 3차례 교류전을 치르며 광주·전남 좌식배구 활성화를 위한 우호도 다졌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스포츠를 통해 육체적 장애 극복을 돕고 장애인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4년마다 열리는 장애인 경기대회다.

올해 9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장애인 아시안게임도 미뤄졌다.

3년 연속 손발을 맞추며 역대 최강 전력을 구축한 대표팀으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대표팀이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목 특성상 제약이 많은 대표팀이 이천 선수촌을 벗어나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이 전지훈련지로 광주를 선택한 것은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의 배려도 작용했다.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이 광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전지훈련중인 한국 남자 좌식배구 국가대표 선수단을 찾아 격려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공

전 회장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쉽고 편안하게 잠자리와 샤워를 할 수 있는 숙소 지원은 물론 좌식배구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장에 배구 전용 바닥재인 타라플렉스를 깔아주는 등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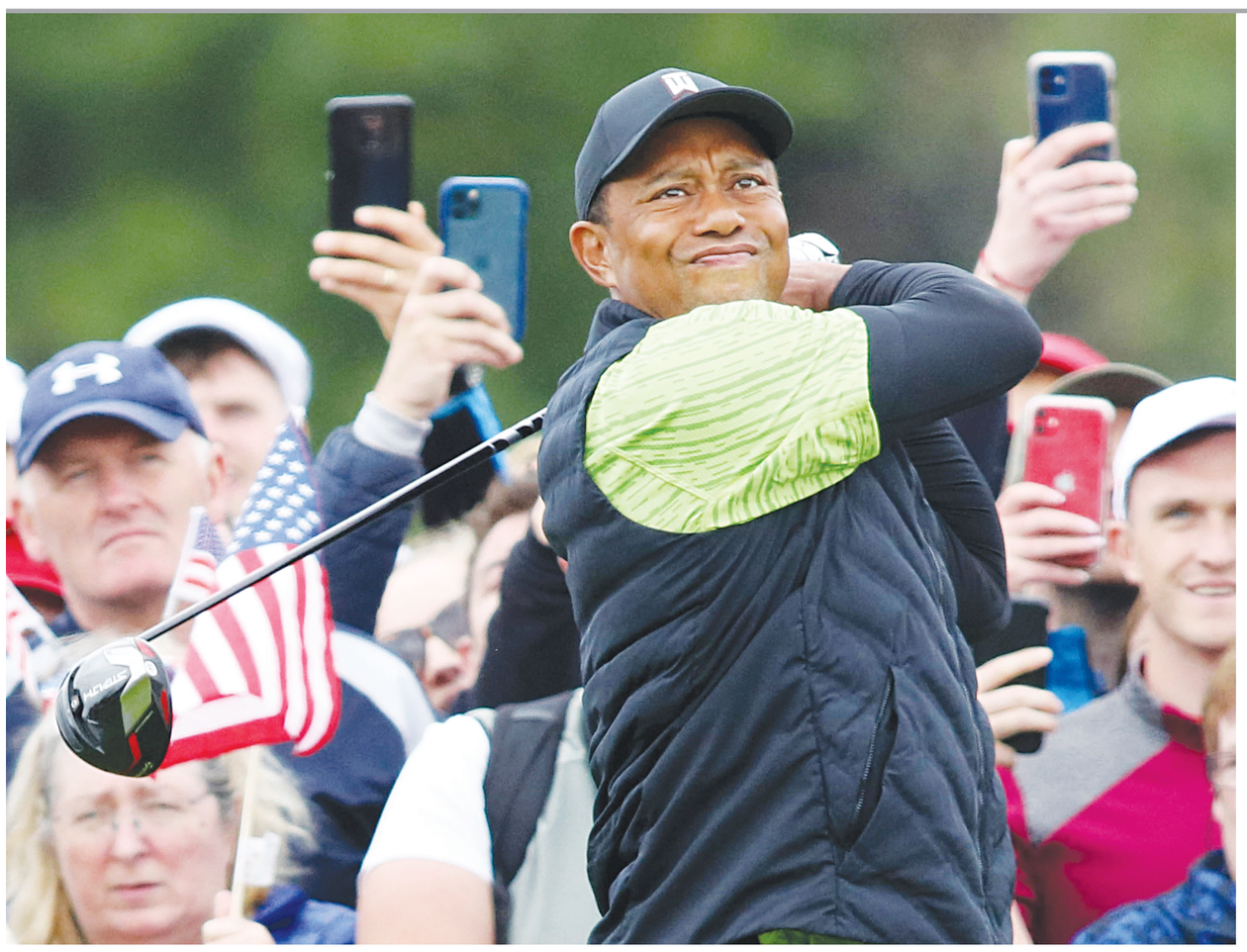
강용석 감독은 "좌식배구 선수들의 전지훈련 선정에 가장 큰 애로점은 숙소 문제인데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는데 많은 힘을 써줬다. 또 앉아서 하는 배구여서 훈련장 바닥의 마찰을 줄여주는 타라플렉스를 깔아주는 등 선수들의 부상 방지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 감사하다"며 "특히 선수들이 만족도가 높아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음에도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02 부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전력 약화로 아시아 변방으로 밀려난 좌식배구는 강 감독 조련과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지원 아래 탄탄한 팀워크를 구축하며 역대 최강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강 감독은 "빛고을의 좋은 기운을 받아 내년에 열리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반드시 따낼 것"이라며 "선수들 모두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한편, 좌식배구는 하지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배구를 즐길 수 있도록 변형시킨 장애인 스포츠다. 앉아서 배구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좌식배구라 부르게 됐다. 네트의 높이가 낮게 조정돼 있으며 일반 배구와 동일한 룰을 적용하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진화 기자


시원한 드라이브샷 5일(한국시간) 아일랜드 리머릭의 어데어매너골프코스에서 열린 JP맥매너스프로암 1라운드 1번홀에서 타이거 우즈가 드라이브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팀플레이 우선… '희생 기록' 1위 선수들

KIA 최형우 타석당 투구수 1위
김성현 번트·김주형 사구 1위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다. 수많은 상황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기록은 팀과 선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기록에도 경중은 있다. 홈런, 안타, 다승, 탈삼진, 평균자책점 등 '클래식 스탯'은 개인상이 걸려있고, 평생 해당 선수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만큼 중요하다.

반면 전력분석팀의 참고 자료로만 쓰이는 기록도 많다. 주목받지 못하는 기록이지만, 희생과 노력, 팀플레이의 가치가 스며든 기록도 있다.

개인 성적과 고과 및 연봉 책정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순수하게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땀의 기록'이다.

먼저 타석 당 투구 수 기록이다. 최대한 많은 공을 던지게 하면 상대 투수를 빨리 지치게 할 수 있다. KIA 타이거즈 베테랑 타자 최형우는 올 시즌 타율이 0.222에 그치지만, 타석당 투구 수 4.26개를 기록하면서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SSG 랜더스의 내야수 김성현은 4일 현재 올 시즌 타율이 0.206에 불과하다. 180타석을 채운 SSG 야수 중 타율이 가장 낮다.

그러나 그는 총 12개의 희생번트를 굴려 KBO리그 전체 타자 중 가장 많은 희생번트에 성공했다.

최형우

승부처에서 희생번트는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작전이다.

김성현은 비록 매 타석마다 시원시원한 적시타를 뽑아내진 못하지만 정교한 '작전 야구'로 SSG의 1위 질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내야 안타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록이다. 전력 질주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의 성실함을 비춰볼 수 있다.

롯데 자이언츠의 외야수 황성빈과 kt 위즈 배정대는 올 시즌 각각 15개씩의 내야 안타를 때려 이 부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황성빈은 1군 무대 데뷔 첫해에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배정대는 번트 안타 없이 순수한 내야 안타만 15개를 작성했다.

고통을 감수하고 팀플레이에 집중 하는 선수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의 김주형은 올 시즌 타율이 0.196에 그치지만, 총 13차례 몸에 맞는 공으로 최다 사구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노수광도 눈에 띄는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홈런보다 더 치기 힘들다는 3루타를 6개나 생산하면서 KIA 소크라테스와 이 부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노수광의 올 시즌 타율은 0.229에 불과하지만, 공을 친 뒤 이를 악물고 전력 질주하고 있다.

키움의 간판타자 이정후는 올 시즌 고의 4구를 무려 11개나 기록, 이 부문 단독 1위 자리에 올라있다.

고의 4구 기록은 뒤를 받쳐줄 만한 타자가 없어 홀로 외롭게 싸웠다는 의미가 녹아 있다.

이정후는 대를 이어 외로운 싸움을 펼치고 있다. 역대 한 시즌 최다 고의 4구 기록은 이정후의 아버지인 이종범 LG 트윈스 코치가 갖고 있다. 해태 타이거즈 소속 시절인 1997년에 총 30개의 고의 4구를 얻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공모 선정

국비 8억9천여만원 확보 '역대 최고액'

광주시체육회가 2022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서 국비 예산 8억9,199만7,000원을 지원받게 됐다.

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받게 될 국비는 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국비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난해는 8억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방체육진흥사업 이름으로 진행됐던 공모사업은 지난해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와 클린문화 조성 노력의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20개 팀(위탁운영팀 포함)과 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6개 팀이 이번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게 됐으며, 시체육회는 광주를 대표하는 실업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각종 경기(훈련)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체육 활성화와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광영중, 여왕기여자축구 아쉬운 준우승

이여은 우수선수상

광영중학교가 제30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영중은 5일 강원도 삼척시 복합B구장에서 열린 대회 중등부 결승에서 경기 설봉중에 0-1로 아쉽게 패했다.

광영중은 전반 15분 설봉중 김서현에 득점을 허용하며 0-1로 끌려갔고, 후반까지 접전을 펼쳤으나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다. 광영중 이여은은 우수선수상, 김한나는 수비상을 받았다. 박태원 감독과 조주빈 코치는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예선 2조에서 설봉중을 3-1로, 노원U15 W를 6-2로 꺾어 2승으로 조1위를 한 광영중은 충북 예성여중과의 8강전에서 3-1, 강경여중과의 준결승에서 4-2로 승리, 결승에 올랐었다. /최진화 기자

KIA 소크라테스 코뼈 수술 재활 4주

놀린도 8월 복귀

KIA 타이거즈 소크라테스(30)가 코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종국 KIA 감독은 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위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소크라테스가 불행중 다행으로 코만 골절됐다. 부기가 빨리 빠지면서 수술을 잘 마쳤다"고 밝혔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2일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와의 경기에서 김광현의 직구에 얼굴을 맞았다. 정밀검진 결과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고 조선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1년 김선빈이 타구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골절돼 6주 정도 지나고 경기에 복귀했다.

김종국 감독은 소크라테스의 복귀 시점을 8월 초로 내다봤다.

김 감독은 "최대 4주 정도 공백을 생각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뛰면서 뼈에 울림이 있으면 더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아리 근육파열로 이탈한 놀린도 8월 초중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새 외국인 투수 파노니는 7일 kt전에 선발등판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퓨처스 올스타전 15일 잠실 야구장 개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이 오는 15일 올스타 프라이데이로 포문을 연다.

그 시작은 퓨처스 올스타 팬 사인회다. 오후 4시 40분부터 그라운드 외야 잔디에서 진행되는 퓨처스 팬사인회는 북부와 남부 리그 올스타 총 16명이 참가해 팬들과 함께 사인회와 포토타임을 갖는다.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퓨처스 올스타전은 오후 6시부터 북부리그(LG, 고양(히어로즈), 두산, SSG, 한화)와 남부리그(상무, 롯데, NC, 삼성, KT, KIA)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남부리그가 홈(후공)이지만 LG, 두산이 속한 북부리그가 1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조혜원 기자